

손 오케이시의 아일랜드 영웅 찾기: 『나에게 붉은 장미를』*

손 동 호

[국문초록]

손 오케이시의 극작가로서의 목표 중 하나는 진정한 아일랜드의 영웅이 될 만한 극적 주인공을 만드는 것이었다. 더블린 삼부작을 비롯한 초기작의 남성 인물들은 대개 현실도피자이거나 인생 패배자였다. 『주노와 공작』의 잭 보일, 『총잡이의 그림자』의 도날 다보렌과 시머스 쉴즈 등은 조국의 식민현실을 극복하려 시도하거나 궁핍한 가족의 부양책임을 다 하려는 어떤 노력도 하지 않는 무책임한 인간들이다. 『은제 컵』의 해리 히건은 모두의 관심과 사랑을 받는 청년으로 공동체의 미래를 책임질 지도자가 될 것으로 예상되었다. 그런데 그가 용병으로 출정한 제국주의 전쟁에서 불구가 되어 돌아오자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는 천덕꾸러기 신세가 된다. 오케이시는 여러 작품에서 남성인물보다 여성인물에게 더 많은 신뢰를 품고 있으며, 심지어 남성 영웅 신화를 냉소적인 관점으로 바라보았다.

『나에게 붉은 장미를』의 아야몬 브레이던은 오케이시가 만든 가장 완벽한 지도자상의 남성인물이다. 아야몬은 종교적으로, 정치적으로 분열되어 있는 사람들의 정신적 통합을 위해 매우 다른 종파와 사상의 이웃, 그리고 동료들을 포용하는 자세를 가진 인물이다. 아야몬의 목표는 사람들을 하나의 집단으로 규합하여 노동투쟁에 나서

* 이 논문은 2018년 한국외국어대학교 교내연구비의 지원으로 연구되었음.

이 논문은 2010년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인문한국(HK)사업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RF-2010-361-A00013).

는 것이다. 3막의 리피 강 다리장면은 더블린 시가 석양빛에 의해 환상의 천국으로 변화하는 현상이 된다. 환상의 천국은 아야몬의 꿈이며 그의 비전이다. 환상은 오래 가지 않는다. 해가 지자 아야몬은 사람들을 뒤로 하고 파업에 참가하여 진압경찰의 총에 맞아 사망한다. 3막의 시점은 부활절 전야로서 아야몬의 죽음은 예수의 부활과 유사한 차원에서 해석될 수 있다.

주제어: 아일랜드 희곡, 손 오케이시, 문학과 노동, 『나에게 붉은 장미들』, 20세기 드라마, 표현주의 희곡

1. 서론

윌리엄 버틀러 예이츠(William Butler Yeats), 레녹스 로빈슨(Lennox Robinson)과 함께 더블린의 애비극장(The Abbey Theatre) 연출팀의 일원이었던 레이디 그레고리(Lady Augusta Gregory)는 1923년 4월 15일과 1924년 3월 8일자 『일기』(Journals)에서 손 오케이시(Sean O'Casey)와의 대화를 언급한다(Krause and Lowery 19). 그레고리와 대화에서 오케이시는 극장 측의 코멘트 중에서 특히 그의 인물 만들기(characterization)에 대한 그레고리의 칭찬을 기억한다고 말하며 그레고리의 말을 이렇게 인용하였다. “나는 당신에게 재능이 있다고 믿어요. 당신은 인물창조에 탁월합니다”(Mikhail and O'Riordan 17). 오케이시는 그 말을 듣고 “내 이론을 내다버렸고, 『주노와 공작』(Juno and the Paycock, 1924)이 그 결과물”(Krause and Lowery 19)이라고 말했다. 여기서 ‘내 이론’이란 초보 극작가로서 오케이시가 그 때까지 가지고 있던 극작의 기본원칙과 기법 등에 관한 지식을 가리키는 것으로 해석된다. 소위 더블린 삼부작으로 불리는 『주노와 공작』, 『총잡이의 그림자』(The Shadow of a Gunman, 1923), 『쟁기와 별』(The Plough and the Stars, 1926) 등은 당대 더블린 빈민가의 일상을 매우 생생하게 그린 작품들이며 공연을 본 관객은 현실에서 바로 데

려운 듯한 그의 인물들을 쉽게 잊지 못한다. 오케이스는 극에서 주로 당대의 정치, 사회 문제를 매우 사실적으로 다루었다. 일상적 평화는 언제 전쟁이나 시위 등에 의해 파괴될지 예측하기 어려웠으며, 그의 인물들은 격렬하고 파괴적인 사회상황에 노출된 위험한 생활을 하였다. 오케이스 자신은 철도노동자로 일하면서 노조활동에 가담한 경험이 있으며, 한때 민족주의자적 성향도 가지고 있었던 사회참여형 작가였다. 그는 작가생활 후반기에 접어들면서 초기의 어둡고 냉소적인 태도에서 벗어나 아일랜드 사회에 대한 애정이 증가된 작품을 발표하였는데, 특히 『나에게 붉은 장미를』(*Red Roses for Me*, 1942)에서 그가 시도한 것은 조국의 식민상황과 계급불평등을 함께 해결할 수 있는 지도자의 등장이었다. 그의 극작활동은 아일랜드의 독립과 안전하고 행복한 사회 건설을 위해 헌신할 영웅을 찾기 위한 작업의 일환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더블린 삼부작에서 아일랜드의 남성 인물들은 긍정적이라기보다는 부정적인 관점에서 그려지고 있다. 그들은 궁핍과 압제 속에서 살면서도 세상을 바꾸려 하거나 투쟁하겠다는 의지가 결여된 패배자들이다. 독립전쟁 당시 더블린 민민가를 무대로 하는 『총잡이의 그림자』에서 동네사람들은 삼류시인 다보렌(Donal Davoren)이 도피중인 공화군 병사라고 믿는다. 그를 짝사랑하는 18세 처녀 미니 파워(Minnie Powell)이 무기 가방을 자기 방으로 가져갔다가 영국군에 발각되어 결국 사살되지 않았더라면 그화는 다보렌이 당했을 것이다. 다보렌은 고통 받는 전사/시인의 흉내를 내지만 정작 그의 본색은 작품 제목의 암시처럼 공화군의 그림자에 불과하며 반영웅(anti-hero)일 뿐이다(Innes 421). 『주노와 공작』의 잭 보일(Jack Boyle)은 아일랜드의 전형적인 자기기만형 현실도피자이다. 그는 석탄 운반용 바지선 선원으로 잠시 일을 한 경험을 큰 배의 선장으로 근무한 것처럼 거짓 허풍을 치며 허송세월을 한다. 그에게 딸이 사기꾼에 의해 임신한 채 버림받은 일이나 아들이 동족 간의 내전의 소용돌이 속에서 배신자로 낙인 찍혀 살해당하는 끔찍한 현실은 관심 밖이다. 『은제컵』(*The Silver Tassie*, 1927)은 영웅신화의 허망함을 극화한 작품이다. 주인공 해리 히건(Harry Heegan)은 공동체의 미래를 짊어질 청년으로 모든 사람의 주목을 받았다. 특히 뛰어난

난 운동실력으로 젊은 여성들 사이에서 그의 인기는 타의 추종을 불허하였다. 그러나 그가 전쟁에서 불구가 되어 돌아오자 모두 그를 외면하였으며 평범한 이웃보다도 못한 천덕꾸러기 취급을 한다. 영웅숭배 신화는 결코 찬양해야 할 것이 아니며, 인간을 소모품으로 이용하는 제국주의 전략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이 작가의 생각이었다.

이 글에서 연구자는 『나에게 붉은 장미를』을 오케이시의 아일랜드 영웅찾기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지는 작품으로 보고 아야몬(Ayamonn Breydon)을 중심으로 하여 작가의 인물만들기를 분석하는 작업을 수행한다. 아야몬(Ay-a-monn=Everyman)은 평범한 개인이면서 동시에 모든 아일랜드 남성을 아우르는 종합적 인격체가 될 수도 있다(Kleiman 56). 따라서 인물분석은 단순히 아야몬 한 사람의 인간성을 논의하는 차원에서 그치지 않고 작품 속 관계의 그물 안에서 인물 전체가 어떻게 공동체를 위해 자신을 희생할 지도자의 탄생을 위해 협조하는지에 집중할 것이다. 아야몬의 성장은 주위환경과 이웃, 그리고 직장동료들의 보이지 않는 조력과 후원의 힘으로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이다. 더블린은 여러 가지로 인간관계가 복잡한 공동체이다. 아야몬은 성모 마리아에 버금가는 훌륭한 인성을 가진 어머니에 의해 양육되었다. 또 새로운 것에 대한 호기심뿐만 아니라 다양한 취미와 재능을 가진 개인이며, 개신교를 믿는 빈민가 주민, 그리고 노조 간부이다. 외적 조건에 따라 우호적인 관계가 형성될 수도 있고, 그 반대로 갈등과 분열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여기서 지켜볼 것은 아야몬이 공동체의 단합과 노동자의 권익 증진을 이루기 위해 온갖 장애요소를 극복하고 모두가 따르는 지도자로 성장하는 과정이다.

아야몬의 영웅으로서의 자질을 논의한 비평가로서, 우선 스톡(A. G. Stock)은 “영웅의 이미지: 『나에게 붉은 장미를』”(The Heroic Image: *Red Roses for Me*)에서 이 작품이 오케이시 후기작 중 “가장 강력한 신앙의 증명”(the strongest affirmation of faith, Ayling 126)이며, 아야몬 브레이던은 오케이시가 만든 “이상적이면서도 과장되지 않은 긍정적 영웅의 이미지”(positive heroic image, ideal but not incredible, Ayling 126)라고 평가한다. 『손 오케이시의 비전의 다리: 구조와 관점에 관한 4개의 에세이』(The Bridge of Vision: *Four Essays on Structure and Perspective*, 1982)는 『은

제컵』과 『나에게 붉은 장미들』에 나타난 오케이시 극의 표현주의적 양상을 심도 있게 논의한 책이다. 저자 클라이먼(Carol Kleiman)은 이상주의자 아야몬을 평가하면서 인간은 꿈 없이 살 수 없으며 별에 도달하려고 하는 과정에 “자기 내부의 고귀한 것, 진정으로 신적인 어떤 것”을 표현하게 된다고 아야몬의 아름다운 품성을 찬양한다. 잭 미첼(Jack Mitchell)은 맑시스트 관점에서 쓴 책 『손 오케이시의 희곡 열두 작품 연구』(*Essential O'Casey: A Study of the Twelve Plays of Sean O'Casey*, 1980)에서 아야몬을 빈민가 주민과 노동자들을 규합하여 프롤레타리아 혁명에 나서는 사회주의자로 그린다. 연구자는 미첼의 유물론적 관점의 도움으로 주요인물들은 물론 작은 인물들에게도 동등한 관심을 둘 것이며, 아야몬이 건설하려는 이상사회의 꿈이 3막에서 어떤 모양으로 실현되는지, 그리고 그의 모험과 장렬한 죽음이 부활절과 맞물려 기독교적 맥락에서 해석되는 양상을 논의할 것이다.

2. 영웅의 성장: 아야몬과 친구들

『나에게 붉은 장미들』은 오케이시 희곡 중에서 유일하게 “행동하는 영웅적 남성”의 본격적 연구이다(Ayling 128).¹⁾ 우선 이 작품에서는 남성주인공을 향한 작가의 비웃는(ironic) 태도가 발견되지 않는다(Simmons 121). 이전 작품들에서 오케이시는 아일랜드 남성들의 ‘말뿐인’ 허세와 ‘이기적인’ 비겁함에 대해 비판적이었고 심지어 냉소적인 자세를 취했다. 오케이시의 첫 출세작 『총잡이의 그림자』의 아돌포스 그릭슨(Adolphus Grigson)은 술기운에 가장 애국자인 척 소란을 피우다가 영국군이 들이닥치자 가장 비굴한 겁쟁이가 된다. 영국군이 떠난 뒤 그가 이웃들에게 설명하는 영국군 앞에서의 당당함은 그의 아내의 진술과 정반대여서 관객은 실소를 금할 수 없게 된다.

『나에게 붉은 장미들』의 아야몬은 새로운 종류의 아일랜드 남성이다. 그는 공동체의 화합을 위해 사람들 사이를 이어주는 중재자이며, 남을 위해 자신의 안전을 희생시킬 각오가 되어 있는 지도자이다. 오케이시의 극작목표는 대중과 함께 사회변혁을 이

끝 영웅을 만드는 것인데, 이 작품에서 비로소 아야몬은 일정한 단계를 거쳐 사적인 개인에서 사회적 지도자로 성장한다(Mitchell 208). 작가는 그가 개인적 출세와 행복에 대한 유혹, 그리고 동료 노조원들에 대한 헌신 사이에서 약간의 갈등을 겪으며 지도자로 성장해가는 과정을 그린다. 그는 잭 보일처럼 무책임하거나, 다보렌처럼 비겁하고, 해리 히건처럼 건장한 육체 외엔 내세울 게 없는 텅 빈 인간이 아니다. 그는 지식욕이 왕성하며 다재다능한 재능을 가진 예술가이며, 이를 수 없는 이상의 실현을 위해 열정을 불태우는 몽상가이다. 하지만 그의 말은 행동과 일치하며, 동지들을 보호하기 위해 기꺼이 방패 노릇을 하는 전사이다. 아야몬은 오케이시의 인물들 중 인격완성 면에서 가장 수준 높은 영웅이다(O’Riordan 253).

한편, 아야몬이 탁월한 지도자가 된 것이 그의 뛰어난 개인적 역량 때문이라고 논의를 전개하는 것은 작품의 일면적 평가이다. 오케이시가 만들려는 지도자는 귀족이거나 상류층 출신의 사람이 아니고, 홀로 뛰어난 자질의 소유자도 아니다. 그의 주변에는 뚜렷한 개성이 주어지지 않은 여러 명의 인물이 있다. 아야몬의 삶과 죽음은 이 여러 인물들과의 간접적 연결관계를 고려하며 명상하고 평가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 작품에는 아야몬과 그의 어머니, 그리고 애인 쉘라(Sheila Moorneen)와 브레넌(Brennan O’ the Moor)처럼 거의 항상 등장하는 인물들 외에 극적 인물로서 개성이 약한 작은 인물들이 다수 등장한다. 그 작은 인물들은 그들이 속한 도시의 밑바닥 계층을 대표하며, 그들의 등장은 당시 시대정신을 반영하는 집단 에너지의 표상이다. 또 그들이 발산하는 에너지의 총합이야말로 아야몬을 탄생시킨 보이지 않는 힘이다. 그들은 각자의 입장에서 행동을 하지만, 그들의 존재 이면에는 당시 아일랜드인들의 의식을 관통하는 시대정신이 도사리고 있다. 그들의 시선은 아야몬을 향하고 있으며, 아야몬은 그들의 꿈을 이루기 위해 자신의 생명을 내려놓는다. 오케이시의 작품에서 “영웅은 대중(masses)이어야 하며, 대중으로부터 나와야 한다. 즉 대중과 하나여야 한다”(Mitchell 208). 아야몬의 성장은 공동체 전체의 작업이며, 그의 지도자 됨은 공동체 전체의 성과이다.

아야몬의 성장에 가장 크게 기여하는 인물은 그의 어머니 브레이던 부인(Mrs.

Breydon)이다. 브레이던 부인은 아들의 꿈과 비전을 어머니의 사랑으로, 그리고 실천적 봉사활동으로 지원하는 인물이다. 그녀는 아들의 셰익스피어 공연연습에서 상대역을 해줄 정도로 연극을 좋아하여 아야몬의 예술적 재능은 어머니로부터 물려받은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된다. 그녀는 남편도 없이 가난 속에서 고생하면서도 아들에게 자긍심과 관대함을 잃지 않도록 가르쳤다. 아야몬은 어린 시절을 회상하며 “어두울 때 어머니는 언제나 나에게 태양을 가져다 주셨어요”라고 말한다(O’Casey 232).²⁾ 브레이던 부인은 자신보다는 이웃의 편안함에 더 많은 신경을 쓰는 “선한 사마리아인”이다(Mitchell 211). 그녀는 연극연습 후 밤이 늦었음에도 이웃 캐시미어 부인의 병간호를 위해 외출을 하며, 또 상이 나자 장례를 치러주기 위해 직책 없는 성직자의 역할을 수행한다. 아야몬은 어머니의 자선활동이 수녀의 흉내를 내는 것 같다고 불평을 하며 이웃도 어머니를 그렇게 도와줄 것으로 생각하느냐고 편지를 준다. 아야몬이 노조 지도자로서 파업에 앞장서는 것처럼 그의 모친은 이웃의 고통을 위로하고 함께 나누는 데 참여한다.

아야몬의 애인 쉘라는 그의 어머니와 여러 가지로 대조적인 인물이다. 아야몬과 쉘라의 교제는 그의 포용적 인간관계를 엿볼 수 있는 증거가 된다. 아야몬은 공동체 구성원들 사이의 정치, 종교, 철학의 차이를 심각한 장애물로 보지 않는다. 쉘라의 부친은 노조를 탄압하고 독립군을 진압하는 왕립경찰(the Royal Irish Constabulary)의 일원이지만 그 사실과 관계없이 쉘라를 자신의 세계로 끌어들이고 있다. 쉘라는 외적인 조건에 있어 아야몬과 어울리는 여성은 아닐 수도 있다. 브레이던 부인은 쉘라의 종교와 가정적 배경이 아야몬과 너무 다르다는 이유로 교제에 부정적인 입장을 견지한다. “아일랜드의 절반은 남자가 여자를 사귄 때 두 사람의 신앙을, 나머지 절반은 여성의 부친의 직업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할 것이다”라고 말한다(234). 또, 브레이던 부인의 눈에는 쉘라가 빈민가 출신의 아야몬의 배필이 되기엔 너무 화려한 여성으로 보인다. 그래서 또 “여자로서 쉘라는 많은 무명 술 가운데 있는 고운 비단 술이다. 다른 아가씨들이 담장 그늘을 따라 조심스럽게 걷는다면 쉘라는 햇볕 속에서 고개를 바짝 들고 담장이 아닌 길 한복판을 걸으며 모두에게 자신을 과시한다”라고 말한다(230).

설라는 아야몬의 정치적 관심과 반대되는 방향을 지향한다는 점에서 그의 의지의 단단함을 시험하는 인물이다. 사실 아야몬은 극적 인물로 평가되기엔 심적 갈등이 약하고 고뇌하는 모습이 부족하다(Ayling 126).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를 공동체의 지도자로 만드는 것은 그가 주위의 만류를 무릅쓰고 파업강행에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데 초지일관 변함이 없기 때문이다. 그의 노조활동에 가장 큰 이의를 제기하는 인물은 설라인데, 그나마 『쟁기와 별』의 노라(Nora)에 비하면 설라의 반대는 통과외례에 지나지 않는다. 그의 어머니가 파업참여를 만류하다가 그만두고, 친구인 클린턴 목사도 다가올 상황을 알려주는 선에서 벗어나지 않는다. 곧, 사람들은 입장을 바꾸어 그의 뜻과 의지를 존중하고 축복과 격려의 말을 해준다. 파업을 시작하러 가는 아들에게 어머니는 “너의 길을 가거라, 아들아. 그리고 승리해라”라고 말한다(300). 주위의 만류는 그의 활동을 제지하기보다는 오히려 그를 격려하고 그의 굳은 의지를 돋보이게 하는 효과를 낳는다. 설라는 아야몬에게 행복한 결혼생활을 위해 편하고 이기적으로 살고 설득하려 한다. 그러자 아야몬은 “머지 않아 시간의 회색 손가락이 청춘의 진홍색 장미에 경고의 반점을 찍을 때가 되면 지혜를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게 될” 것이며 아직은 노인처럼 살 필요가 없다고 말한다(239). 그는 “우리는 불타는 가시덤불의 불빛 속에서 살고 있”으며, “삶은 도처에 번지는 보기 좋고 느낌 좋은 불꽃”이라고 말한다(239). 그의 불꽃비유는 한편으로는 성경의 창세기 출애굽기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이집트에서 구출하여 가나안 땅을 향해 가던 모세가 불타는 가시덤불 위에 서서 십계를 받았던 일을 연상시키고, 다른 한 편으로는 공산주의 혁명의 상징으로 자주 사용되는 불꽃을 연상시킨다. 자신을 모세와 같은 지도자에 비기지만 거기에 사회주의 혁명적인 생각도 포함되어 있다.

불꽃의 비유는 또 거의 같은 부분의 대화에서 가시 돋친 장미와 피의 이미지로 연결된다. 설라는 아야몬에게 아름다움의 화신이기도 하지만 그의 혁명적지를 고취시키는 여신이기도 하다. 아야몬은 설라가 원하는 인생이란 “소심한 사람들이 조심조심 걷는 창백한 꽃길”인데, 자신은 그 대신 “긴 날카로운 가시가 돋친 붉은 장미밭에 서있을 것”이라고 말한다(239). 장미의 붉은 색은 아름다움의 상징이기도 하지만 그가 흘

려야 할 피의 색깔이기도 하다. 아야몬에게는 보다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 기꺼이 자신을 희생시키려는 지도자의 열정이 있다. 설라는 아야몬의 세계에서 자신은 들러리이며 그의 “환상 속 불꽃”에 지나지 않는다고 주장하는데 비해 아야몬은 설라는 “신의 제단으로부터 온 불꽃”으로, “삶의 끓어오르는 순간을 위해 새로운 길을 밝히거나 시인의 가슴에 노래를 타오르게 한다”고 강조하며 그녀에게 구애를 한다. 장미의 붉은 색과 불꽃의 뜨거움이 아야몬의 비전의 속성이 무엇인지 기묘하게 한다. 설라는 아야몬에게 “어리석은 사람들”과 “어리석은 짓”을 그만두고 그 사람들과 헤어지라고 요구한다. 아야몬의 태도는 단호하다. “자기가 나에게 무슨 요구를 하는지 알고 있어? 배신자가 되라는 거야. 내 동지들의 희망을 배신의 검은 서릿발로 짓밟으라는 거야. 자기가 그 사람들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지만 나에게겐 동지들이야. 그 사람들이 어떤 행동을 하든 나에게겐 형제자매들이라구”(264). 아야몬의 혁명은 혼자 감행하는 것이 아니다. 대중과 함께 시작하고, 그들과 함께 완수하는 과업이다.

브레넨은 아야몬의 인격을 간접적으로 조명하는데 유용한 인물이다. 그 이유는 브레넨은 항상 아야몬 가까이에서 그와 다른 행동을 함으로써 대조를 이루기 때문이다. 아야몬이 이상에 빠진 예술가라면 브레넨은 돈 계산에 밝은 사람이다. 그는 자린고비처럼 돈을 모아 허름한 건물을 구입, 약간의 수리 후 고액의 임대료를 받고 빈민들에게 세를 놓는 악덕 임대업자로, 만나는 사람마다 아일랜드은행(Bank of Ireland)이 돈을 맡기기에 안전한 곳인지 묻는다. 그것도 가난한 사람에게 그런 질문을 한다. 그는 교육을 많이 받지 못했고 예술에 대한 지식도 열정도 부족하다. 그런데 그에게 부정적인 면만 있는 것은 아니다. “인간성의 복잡한 이중성”이라고 부르는 인간성의 다양한 측면이 그에게서 발견된다(Kleiman 56). 그는 성탄절에 동네 어린이들에게 장난감을 선물하기도 하고, 교회에 헌금을 넉넉하게 한다고 알려져 있다. 더구나 갑자기 사라진 성모상이 완전히 새로운 모습으로 단장되어 돌아온 일이 개신교도인 브레넨이 한 일이었다는 점은 그의 인간성이 단순 편협하지 않음을 암시한다.

아야몬과 브레넨의 행위를 자세히 관찰하면 인간의 모순적인 양면을 두 인물로 나누어 서로 대비시키는 것이 아닌가 하는 느낌을 받는다. 아야몬이 꿈 많은 이상주의자

라면, 브레넨은 매우 조심스럽게 처신하는 현실주의자이다. 그런가 하면 다소 경직된 원칙주의자 아야몬과 달리 브레넨에게는 인간의 감성을 중시하는 측면이 있다. 철도 노동자 샘(Sam)이 쉼터 앞에서 부른 노래 ‘나에게 붉은 장미를’은 아야몬이 작사하고 브레넨이 작곡한 것으로 두 인물의 예술적 재능이 연관되어 있음을 암시한다. 3막의 리피 강 다리 장면에서 파업 시작 전 브레넨은 아코디언을 켜며 사랑의 노래를 연주한다. 그의 노래는 거기에 모인 사람들에게, 그리고 특히 아야몬과 쉼터에게 투쟁보다 사랑의 중요성을 지적한다. 브레넨이 아야몬의 다가오는 죽음을 예상하고 있었는지는 불분명하다. 그러나 그가 부른 노래는 아야몬에게 쉼터와의 작별인사가 되고 말았다. 바꾸어 말하면 브레넨의 노래는 아야몬이 쉼터를 향해 부르는 사랑의 고백이 된 것이다. 아야몬이 노조활동에 매진하고 있는 오케이시 자신이라면, 브레넨은 그런 자신을 지켜보는 또 하나의 아야몬으로 등장한 것으로 보인다(Esslinger 622). 아야몬이 투쟁으로 아일랜드를 바꾸는 데 매진하고 있다면, 브레넨은 행복한 결혼생활을 하고 싶은 소시민 아야몬의 꿈을 드러낸다.

아야몬을 둘러싼 인물들은 아일랜드 역사와 문화, 그리고 이념과 사상이 의인화 되어 무대 위에 올려진 것처럼 보인다. 그 요소 중에서 민족주의를 기반으로 하는 반제국주의 투쟁은 오케이시도 한 때 우호적으로 생각했던 이념이다. 인물 중에서 루어리(Loory O’Balacaun)은 아야몬의 민족주의적 성향을 드러내는 인물이다. 그는 변화하는 세계의 새로운 사상이나 독서에 별 관심이 없고, 그 대신 아일랜드의 전설과 신화, 그리고 카톨릭 교리를 최고의 가치라고 주장하는 고지식한 아일랜드주의자이다. 브레넨이 파업자금 모금을 위해 미국식 민스트럴쇼(minstrel show)를 준비한다고 할 때 루어리는 반대하는 입장을 취한다. 그는 아일랜드의 전통과 문화에 접맥되어 있는 것이 아니면 무조건 배척하는 편이며, 반자본가 계급투쟁을 반제국주의 투쟁과 동일선상에서 이해한다. 그래서 파업을 아일랜드 신화에 나오는 ‘빛의 검’(The Sword of Light)이 빛을 발하는 혁명쯤으로 생각한다. 켈트신화에 나오는 빛의 검은 루어리 같은 공화주의자들이 독립의 상징으로 간주하는 물건이다. 아야몬은 루어리의 민족주의적 생각을 기꺼이 환영한다. 루어리가 공화주의 행사인 테렌스 벨루 맥마너스(Terence Bellew

MacManus)³⁾기념일 행사 티켓을 가지고 찾아오자 아야몬은 노조집회에서 그 티켓들을 판매할 것이라고 말한다. 루어리는 아일랜드인들이 잃어버렸다고 생각했던 “꼭대기가 황금불꽃의 창 모양으로 장식된 거대한 백색 촛불이 타오르”며 빛의 검은색으로 변화하고 있다고 외친다(253). 그가 공화주의자 조직인 페니언단(The Fenians)의 노래를 부르자 아야몬도 함께 노래를 부른다.

전투가 가장 치열한 곳으로 가라
가장 고결한 사람들과 가장 추한 사람들이 치열하게 싸우는 곳
공화군의 깃발이 적들을 비웃을 것이며
페니언단이 어두운 밤을 낮으로 밝힐 것이다.

Then out to th' place where th' battle is bravest,
Where th' noblest an' meanest fight fierce in th' fray,
Republican banners shall mock at th' foemen,
An' Fenians shall turn a dark night into day! (253)

아야몬은 1막 끝 이 장면에서 나라의 독립을 향한 애국심을 강하게 드러낸다. 아야몬의 노래를 들으며 루어리는 “페니언단이 다시 일어섰습니다. 빛의 검은색이 빛나고 있습니다”라고 외친다(253). 1막이 민족주의적 분위기에서 종결된 것은 작가의 의도가 노동투쟁과 반제국주의 투쟁을 병행하여 진행시키는 데 있다는 의미로 보인다. 이는 식민주의자들과 자본가 계급이 서로 결탁하여 아일랜드인을 정치적으로 그리고 경제적으로 억압하고 있다는 인식에서 비롯된다.

20세기 초의 아일랜드는 종교적 갈등 외에 과학기술과 여타 학문의 발달로 새로운 사상이 유입되고 과거의 전통문화와 사고방식은 더 이상 합리적인 것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러한 시기에 가장 크게 흔들리는 것이 기독교 신앙과 신의 존재에 관한 사람들의 고정관념이다. 진화론자 멀캐니(Tim Mulcanny)는 무신론자로서 만나는 사람마다 성경은 허구라고 주장하며 사람들의 마음에서 신을 지워버리겠다고 떠들고 다녀 “빗자루”(The Broom)라는 별명으로 불린다. 그는 창세기의 아담과 이브 얘기는 다

거짓말이고, 인간의 손과 원숭이의 손, 말의 발, 물개의 발, 그리고 박쥐의 날개의 유사성을 진화의 증거로 든다. 그는 기독교인들의 위선적이고 자기기만적인 행위를 지적하며 종교지도자들의 정치적 행보를 신랄하게 비웃는다. 개신교도 브레넌과 카톨릭 교도 루어리의 언쟁을 지켜보던 멀캐니는 “이 바보들아, 교황은 (개신교도) 윌리엄 왕(King William)이 승리하기를 원했고, (카톨릭 교도) 제임스 왕(King James)이 보인(Boyne) 전투에서 패배했을 때 바티칸 궁이 환희의 불로 휘황찬란했던 거 몰라?”라고 비웃는다(260). 사실 이들의 논쟁을 들어보면 카톨릭과 개신교의 성인들조차 잘 구분하지 못하고 있어 과연 이들이 신앙문제로 다투는 건지 아니면 싸움을 위한 싸움을 하는 건지 분간하기 어렵다. 멀캐니는 자신이 ‘진리의 등불’(The Lamp of Truth)을 들고 길을 밝히는 사람이라고 자부한다. 하지만 종교심이 강한 아일랜드인들에게 멀캐니는 무도한 사람으로 인식되어 가는 곳마다 폭행을 당할 정도로 험악한 대접을 받는다. 브레넌은 아야몬이 멀캐니의 행동을 두둔한다고 불만이 있는 사람들이 많다는 말을 한다. 아야몬은 그 말에 전혀 개의치 않고 정직한 사람의 진리추구는 설사 그것이 자신의 길이 아니라 하더라도 보호해주겠다고 말한다. 루어리와 브레넌은 멀캐니가 주고 간 책을 보지 말라고 주문하는데, 아야몬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만약 우리가 우리시대의 사람들에게 많은 것, 모든 것, 삶 자체를 물어볼 여지를 주지 않는다면, 자유는 종이꽃과 양철별에 지나지 않습니다”(262).

앞에서 열거한 것처럼 아야몬 주변의 인물들은 각자 종교, 철학, 이념이 서로 다른 인물들로 만나기만 하면 대립하고 언쟁을 벌이는 것처럼 보인다. 그렇지만 대립은 아일랜드 사회의 다양성을 반영하면서 화해와 화합을 위한 출발점이 된다. 싸우는 인물들에게는 견해차와 함께 이들을 하나로 묶는 통일된 정서가 있다. 아야몬은 루어리가 외치는 ‘빛의 검’과 멀캐니의 ‘진리의 등불’이 서로 배척하는 성질이 있지만 아일랜드를 위해서는 둘 다 필요하다고 간주하고 이들이 서로 포용하도록 유도한다(O’Riordan 254). 서로 배타적인 요소가 결정적 분열의 원인이 되는 대신 이해와 관용의 정신으로 수용되기도 한다. 아야몬과 정신적 짝이라고 할 수 있는 브레넌은 개신교도이지만 구교도들과 어울리는 데 큰 부담을 느끼지 않는다. 그는 우상숭배가 죄악이라고 나무라

기도 하지만 사라진 성모상 때문에 슬퍼하는 여자아이 어술라(Ursula)에게 성모상에 바칠 꽃을 사다 주곤 했다. 마찬가지로 카톨릭 교도들은 브레넌을 강하게 비판하지 않는다. 그들에게는 개별적 이념이나 종교적 차이를 뛰어넘어 서로 공유하는 역사문화적 기본 정서가 있기 때문이다. 모두가 압제 하의 아일랜드인이라는 의식은 이들을 하나의 모으는 끈으로 작용한다.

3. 3막: 천국의 환상

아야몬의 비전이 환상이로나마 실현되는 장면은 3막이다. 우선 1막에서 쉼라는 노조 활동을 그만두도록 아야몬을 설득하러 왔다가 실패하고 돌아간다. 그녀는 아야몬이 결혼생활의 소중함을 인정하지 않는 것에 화가 나 떠나버렸다. 그러나 아야몬은 그녀를 포기하지 않는다. 그가 작사한 노래 속의 장미꽃을 든 여인은 은연중 쉼라를 가리키며 그에게 쉼라는 단순한 애인의 차원을 넘어서는 존재의 이유가 있다. 그는 쉼라에게 리피 강 다리에서 다음 날 밤에 만나자고 말한다. 아야몬은 자신의 이상의 실현에 쉼라를 반드시 참여시키고 싶어 한다.

인물들의 다양한 스펙트럼을 보면 오케이스는 사회개혁의 원동력을 아야몬과 다른 인물들의 전체적인 조화에서 찾는 것을 알 수 있다. 변화의 분위기는 1막에서 시작하여 서서히 고조된다. 아야몬의 집은 “자석처럼” 인물들을 끌어들이는 힘이 있는 장소이며, 아야몬은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빛을 주는 태양과 같은 존재이다(Mitchell 221). 그는 이웃사람들, 그리고 노동자, 대중과 함께 지내며 그들을 지도하여 투사로 만드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 또 역으로 그들은 아야몬을 따르고, 그의 열정에서 새로운 세상을 예감한다. 인물들의 개성은 당시 아일랜드라는 공동체 구성원들의 다양한 문화적, 이념적 측면을 반영하며, 구성원들 사이의 충돌이 발생하였을 때 아야몬은 문제 해결의 열쇠 역할을 한다(Kosok 178). 브레이던 부인, 쉼라, 브레넌 등의 인물들은 각자 뚜렷한 주의, 주장을 펴면서 아야몬의 세계를 장식한다. 그에 비해 이웃의 이름 없는

남녀인물들과 노동자들은 표현주의적 분장을 통해 비인간화(de-humanized) 되고 탈개성화(de-individualized)된 채 등장한다. 예를 들어 오케이시는 더블린 여인들 전체를 청년(이다 Eeada), 중년(딤프나 Dymrna), 노년(피놀라 Finnoola)의 세 인물로 나누고 얼굴주름의 숫자에 차이가 나는 분장을 하고 등장시킨다. 양식화된 분장을 통해 더블린의 여성들이 세 그룹으로 집단화된 것이다. 이들은 늘 함께 다니므로 극적 인물로 인정되기엔 미흡할 정도로 역할이 작지만 이들이야말로 아야몬이 애정을 주는 동지들이다. 아야몬은 이 작은 인물들이 모이는 리피 강의 다리를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상징적 소통과 연결의 장소라는 의미로 “비전의 다리”(the bridge of vision)라고 부른다.

3막 초반, 다리에서 보는 더블린은 더 이상 추락할 수 없는 궁핍과 고통 속의 비참한 현실이다. 1막에서 성모상을 들고 등장하는 더블린의 세 여인은 여기서는 행상으로 나서는데, 검정색 옷을 입고 다리 끝의 땅바닥에 앉아 있어 “깊은 밤의 어두움에 싸인 것처럼 보인다”(275). 작가는 이들의 대사에서 더블린의 천국으로의 상승 직전 추락의 최저점을 보여준다. 이다는 사과와 케익을, 딤프나는 패랭이꽃을 팔고 있다. 1, 2막에서 이 여인들은 개별성이 부족한 인형들처럼 보였는데 여기서는 시적 분위기를 주는 대사로 더블린의 비참한 상황을 지적한다(Scrimgeour 135). 그들은 더블린을 “이 해면처럼 무거운 하늘”이라고 부르고, “저 묘지 같은 집들”은 더블린의 몸이고 자신들은 더블린의 회색 영혼들이라고 말한다. 더블린에선 슬픔이 머리 위로 내리며 진흙탕이 발목을 적신다고 한다. 딤프나는 더블린은 “죽은 자들이 모두 땅 위에 뒹구는 묘지”라고 말한다(285).

이다. [아주 낮은 그러나 우울한 목소리로] 이진 우울한 도시다.

딤프나. [똑같이 중얼거린다.] 어둡고 우울한 도시다.

피놀라: [똑같이.] 쓸쓸하고 어둡고 우울한 도시다.

남자 1. 너무 긴 인생에 시달린 학대 받은 누더기처럼.

남자 2. 도시의 세 개의 문은 가난, 고행, 그리고 고통이다.

EEADA. It's a bitter city.

DYMPNA. It's a black and bitter city.

FINNOOLA. It's a bleak, black and bitter city

1st MAN. Like a battered, tattered whore, bullied by too long a life.

2nd MAN. An' her three gates are castles of poverty, penance, an' pain.

(285)

세 여인의 대사는 bitter → black and bitter → bleak, black and bitter에서 조금씩 길어지면서 두운 [b] 소리의 반복과 중첩이 더해지면서 무겁고 암울한 느낌을 준다. bitter, battered, tattered의 [tə], 또는 [tə:d]는 단어의 뜻과 소리 모두에서 더블린 사람들의 상처 받은 육체와 영혼을 연상시킨다. 남자 2의 대사 끝부분에서 무성 양순음 [p]가 반복되는 “poverty, penance, an' pain”은 유성 양순음 [b]와 달리 파열하는 어감 속에서 고통스러운 느낌을 준다. 더블린으로 들어가는 “세 개의 문은 가난과 고행과 고통의 성”(285)이라는 말은 그곳에서의 삶이 삶 가운데 죽음이고 죽음 가운데 삶이라는 최악의 지경에 있음을 말해준다.

아야몬은 이 순간의 더블린을 천지창조 직전의 우주에 비견하는 말을 한다. “조용히 하세요. 신의 영이 최초로 물의 표면 위를 움직일 때 흑암이었습니다”(286). 루어리는 다리 부근의 거지들을 보며 “이 다 떨어진 낡은 영혼들과의 대화가 캐슬린 니 홀리한(Cathleen Ni Houlihan)에게 천국의 은총과 천국의 아름다움을 가져다 줄 것으로 생각하세요?”라고 묻는다(286). 또 “총소리와 구호의 외침만이 이들을 깨울 수 있습니다”라고 말한다(286). 하지만 사방이 어두워 아무 것도 분간할 수 없는 순간에도 아야몬의 가슴은 인간에 대한 긍정과 조국의 미래에 대한 희망으로 가득 차있다. 그는 “잎과 꽃은 다 떨어졌지만 나무는 죽지 않았다”고 말한다(286). 그가 “말 한 마디로 엄청난 일이 일어날 수도 있어요”(286)고 한 것은 암흑 같은 현실이 곧 아름다운 천국으로 바뀔 수도 있다는 예언자적 직관의 표현이다. 이 순간에 무대는 어두워지고 보이는 것이라곤 교회의 첨탑과 넬슨 기념비(The Pillar of Nelson)의 진홍빛 기둥뿐이다. 그리고 사람의 형상으로는 빛이 쏟아져 내리는 아야몬의 머리가 유일하게 어둠 속에서 연

설하는 전설적인 전사/시인 던보(Dunn Bo)의 잘린 머리처럼 보인다. 이것은 다가오는 아야몬의 희생을 예시하는 상징이다. 죽은 것처럼 보이는 나무에서 다시 꽃이 피는 순간이 오는 것처럼 머지않아 암흑을 뚫고 빛이 쏟아지게 될 것이다.

과업 시작 직전 아야몬의 연설은 그대로 노동자 선언의 성격을 띤다. 아야몬은 아일랜드인의 책임을 강조한다. 아일랜드는 아일랜드인의 손으로 만드는 것인데 아일랜드인들은 기도를 너무 많이 하고 일은 너무 적게 하며, 아일랜드의 영광의 문양 속에는 심술과 원한이 뒤섞여 있다는 것이다(285). 인물들은 영광스러웠던 과거의 더블린을 회상하기도 한다. 이다는 “지식이 넘치고 위대한 사람들의 노래가 흐르는 더블린은 바다 너머 모든 사람들을 압도할 정도로 많은 도시들 가운데 지혜의 여왕으로 우뚝 섰다”고 말한다(276). 피놀라는 먼 과거의 더블린을 언급하며 이렇게 말한다. “한 때 더블린은 황금 반점이 있는 흰 양초였는데 지금은 기울어진 채 촛농이 흘러내리면서 생명이 다한 듯 바람에 깜빡거립니다”(277). 이다는 그래도 토요일이면 기네스 양조장 덕분에 일주일에 한 시간 정도는 더 나은 인생을 잠깐 목격할 수 있다고 스스로를 위로한다. 견딜 수 없는 현실을 술의 힘으로 잠깐씩 잊으며 살아가고 있다는 의미이다.

다음 순간, 어두움이 일시에 몰려가고 더블린은 석양빛에 의해 일시에 환상의 도시로 변모한다. 건물들은 갈색과 빛나는 청동색을 띤다. 아야몬은 거리를 달리는 밴과 트럭들을 가리키며 “전선”(th’ battle-front)으로 달려가는 “청동과 자줏빛 전차들”(chariots)처럼 보이며 “우리 도시에 신이 임재하셨다”고 외친다(289). 인물들은 석양빛의 장엄함에 동화되어 개별성을 상실하고 똑같은 모양의 조각상들로 변화한다. 카톨릭교도, 개신교도, 무신론자, 공산주의자, 브레이던 부인 같은 박애주의자 등 인물들이 아야몬의 포용적 정신의 테두리 안에서 하나로 통일되는 것이다. 아야몬은 “인물들의 개별적인 색채가 하나의 찬란하고 다채로운 종합(synthesis)으로 합쳐지는 초점”이다(Mitchell 220). 흩어지고 자기모순적인 상태로밖에 존재할 수 없는 조각난 재능들이 아야몬에게서 하나의 전체로 된다. 아야몬은 더블린의 영광을 회복하기 위한 투쟁을 예고하는 지도자의 카리스마를 얻는다. 『성서』 나 밀트의 『실락원』 (*Paradise Lost*), 셸리(Percy Bysshe Shelley)의 『결박이 풀린 프로메테우스』 (*Prometheus*

Unbound)에서 발견되는 하늘나라의 풍경이 이 장면에서 펼쳐진다(DARin 118). 이다, 덤프나 등 여성인물들과 무명의 남성인물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아야몬이 가리키는 방향을 바라보며 초록빛 청동조각상처럼 강인한 모습으로 변화한다. 또 다리 밑의 보라색 강물은 진홍빛 잔물결이 일면서 반짝거리고 그 위를 나는 갈매기들은 여왕의 가슴에 장식된 백색 진주처럼 보인다고 말한다. 이 순간의 아야몬은 시인이 되고 가수가 된다. 그가 노래를 선창하자 다른 인물들이 코러스가 되어 화답을 한다. 아야몬과 남녀 인물들이 교대로 부르는 이 노래의 가사는 더블린에서 여우와 늑대를 몰아내고 배고픔과 고난이 없으며 어린아이들과 젊은이들이 언제나 음악을 연주하는 빛의 도시로 만들겠다고 한다.

아름다운 도시여, 그대에게 이르노니 우리 영혼은 잠들지 않을 것입니다.

야망이나 이익의 따뜻한 침대 속에서

우리 손은 노동으로 불어터질 때까지 뻗을 것입니다.

그대 안에서 기적과 아름다움이 다스릴 때까지

우리는 그대를 해방시킬 것을 맹세합니다.

배고픔과 고난에서, 추하고 평범하고 심술궂은 것들로부터

그대의 사람들은 함께 건설할 것입니다.

장엄한 도시를, 가장 아름답고 가장 훌륭한

Fair city, I tell thee our souls shall not slumber

Within th' warm beds of ambition or gain;

Our hands shall stretch out to th' fullness of labour,

Till wonder an' beauty within thee shall reign

We swear to release thee from hunger an' hardship,

From things that are ugly an' common an' mean;

Thy people together shall build a brave city,

Th' fairest an' finest that ever was seen!

이 절정의 순간에 아야몬과 피놀라는 음악에 맞추어 함께 춤을 춘다. 춤을 추는 동안 황금색 빛의 기둥과 보라색 그림자가 번갈아 두 사람을 비춘다. 1막 마지막 부분에 루어리가 외쳤던 것처럼, 이번에는 피놀라가 빛의 검은 빛나고 있다고 외치고 아야몬과 서로 포옹한 채 춤을 끝낸다. 이 순간은 환상의 절정이다. 그런데 더블린의 변화는 실제의 변화가 아니라 빛의 작용에 의한 환상이다. 결코 오래 지속될 수 없다. 환상 속의 절정이 지나면 이내 어두움이 밀려오게 마련이다. 아야몬은 거리시위에 가담하기 위해 떠나고 군인들이 파업을 진압하기 위해 행진하는 소리가 들리면서 무대는 다시 어두워진다.

도시의 변화에 감동한 피놀라는 이렇게 외친다. “그녀(더블린)는 오신(Osheen)⁴⁾이 금빛 하프 멜로디에 맞추어 부르는 노래처럼 빛이 납니다.”(288). 인물들의 의식 속에서 더블린은 여성으로 의인화되어 암시되고 있다. 아일랜드를 대표하는 여인의 이미지는 종교적으로는 성모 마리아이고, 세속적인 전설의 인물로는 캐슬린 니 홀리한이다. 아야몬의 이웃 세 여인이 안고 다니던 성모상의 이름(Our Lady of Eblana’s Poor)은 ‘더블린의 빈자들의 성모마리아’라는 뜻인데, 이 여인들이 안고 다니는 조상이 그들의 신앙심의 상징이라면, 현실에서 성모의 사랑을 실천하고 그들을 돌보는 성자는 브레이던 부인이다. 3막 전반부 어둠 속에서 여인들은 아야몬의 지혜와 용기를 칭찬하는데, 그 칭찬에는 그의 어머니 브레이던 부인에 대한 것도 포함되어 있다. 이들은 가장 암담한 순간에 영광스런 과거의 아일랜드를 건설한 영웅과 신화적 여성을 떠올리되, 실존인물인 아야몬과 그의 어머니를 거기에 대입시켜 현실의 실제적인 변화를 강하게 바란다. 딘프나는 이렇게 말한다. “저 사람의 어머니는 정작 당신 건강은 돌보지 않고 다 쓰러져가는 우리들 집을 드나들면서 편하게 해주려고 그렇게 애를 쓰시는 걸 다 알지요”(286). 이다는 거기에 대해 이렇게 맞장구친다. “주님도 그 분이 없으면 안절부절못하실 거예요”(286).

세속적인 아일랜드의 여인 캐슬린 니 홀리한은 이 작품에 나오는 모든 여인들과 공유하는 여성적 인품을 가진 것으로 추정된다. 가난한 여인도, 부유한 여인도, 그리고 젊은 여인도 늙은 여인도 모두 캐슬린으로 인정될 수 있다. 그런데 브레이던 부인, 그

리고 더블린의 세 여인이 하나의 캐슬린 무리를 이루고 있다면 젊고 아름다운 부자집 처녀 쉘라가 그 반대편에 있다. 쉘라는 세 여인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유복한 가정 출신이다. 영웅 아야몬은 그를 낳아 길러준 어머니에 의해서, 그리고 그의 이웃 가난한 여인들에 의해서도 만들어지지만, 그가 가까이 하려는 젊은 여인 쉘라와의 교제에 의해서도 형성된다. 부연설명을 하면 아야몬의 캐슬린 니 홀리한 해석은 진자처럼 두 개의 반대되는 이미지 사이를 왕복한다. 그는 캐슬린은 여왕의 걸음걸이를 가지고 있으면서 동시에 할머니의 굵은 등을 가지고 있다고 말한다. “우리가 이상적인 캐슬린을 사랑하는 것은 가짜라서가 아니라 아름답기 때문이며, 우리가 실제의 캐슬린을 증오하는 것은 진짜라서가 아니라 추하기 때문이다”(286-87). 결론적으로 캐슬린은 한 사람이 아니라 복합적 이미지의 인격으로 보는 것이 적절하다. 이는 당대의 현실과 그들이 지향하는 이상국가 사이의 간극을 간명하게 지적하는 말이다.

이상세계로 변화한 리피 강 다리에서 남자 1은 “우리는 모두 왕의 자손들이다”라고 외친다(290). 식민상황의 압제와 노동착취의 굴레에서 벗어나 모두 왕손의 대접을 받는 것이 아야몬이 가진 아일랜드의 비전이다. 작품의 첫 장면으로 돌아가면 아야몬이 어머니와 함께 파업 현장에서 공연할 셰익스피어 사극을 연습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 막상 노동자들은 셰익스피어가 너무 어렵고, 또 자신들은 감히 가까이 다가갈 수 없는 대영영국의 귀족 이야기라고 생각하지만, 아야몬의 생각은 다르다. 그는 더블린 빈민들과 노동자들도 모두 영국 왕족과 같은 고귀한 신분의 인간들이고 언젠가는 그렇게 되어야 한다고 믿는다. 아야몬은 극작가 셰익스피어가 아일랜드의 노동자들처럼 평범한 사람이며, 그의 작품도 결코 먼 나라의 이야기만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만약 헨리 왕이 소리를 지르며, 손으로 샷대질을 하고 또 열정을 토해내는 모습만 제외하면”(229) 더블린의 노동자들도 왕과 어울리지 못할 이유가 없다고 말한다. 작품 시작부에 나오는 아야몬의 셰익스피어 연습은 노동자 파업이 시작되기 전에 보여줄 사건으로는 다소 의외의 장면으로 이해될 수 있다. 시적 상상력을 가진 아야몬의 의식 속에서 더블린의 철도노동자의 비참한 현실이 단숨에 왕족의 세계로 변화할 수 있다는 것이 오케이스가 이 작품에서 보여주려는 반전의 극미학이다.

4. 꽃의 상징: 에덴동산, 또는 왕궁

아야몬의 새로운 더블린에 관한 비전에서 꽃과 화단은 중심 상징 중 하나이다. 작품에서 나타나는 첫 번째 꽃은 브레이던 부인이 기르는 강통 화분들이다. 무대 지시에 따르면 아야몬의 집 창문 아래 벤치 위의 비스킷 강통에 세 종류의 꽃이 심어져 있는데, 진홍색 쥐손이풀, 황금색 물파리아재비, 보라색 비늘꽃이다. 이 화분들은 좁게는 빈민가의 삶을 의미하고, 넓게는 식민지 백성의 빼앗긴 나라를 상징한다. 꽃이 정원이나 화단이 아닌 작은 강통에 심어졌다는 것은 그만큼 열악하고 협소한 공간에서 연명하고 있다는 뜻이다. 브레이던 부인은 집안에 들어오면 늘 이 꽃들을 제일 먼저 들여다 보는 습관이 있다. 멀캐니가 철도노동자들에게 돌팔매질을 당하며 쫓겨 들어왔을 때도 브레이던 부인은 집에 돌아오자마자 혹시 꽃들이 상하지 않았는지 살핀다. 무대 지시에 따르면 이 화분들은 작은 에덴동산이며, 이 집의 거실을 왕궁의 분위기(regal tint)로 변화시킨다고 되어 있다. 왕궁의 분위기는 극이 시작하자마자 아야몬과 그의 어머니가 연습을 하는 셰익스피어 연극에 의해서도 조성된다. 어머니와 함께 『헨리 6세, 3부』 연습을 하면서 아야몬은 리처드 글로스터(Richard Gloucester)의 곱사등이 분장을 하고 거실 의자 중의 하나를 왕의 옥좌로 정하고 실제로 그 자리에 앉아 연기 연습을 한다. 아야몬의 집은 아일랜드라는 신의 화단이며, 그의 집은 왕궁이 된다.

왕궁의 분위기에 가장 잘 어울리는 꽃은 역시 장미이다. 그런데 이 작품에서 장미는 영광, 용기, 희생의 상징이면서 동시에 슬픔과 고난 등 다양한 함축적 의미를 가진 다(Malone 151). 장미의 이미지는 이 작품 전반에 걸쳐 사용되지만 아야몬의 세계에서 장미는 무조건 아름답거나 빛나는 꽃은 아니다. 작품의 시작부에 아야몬의 셰익스피어 연습에서 등장하는 랑카스터 가문의 문장인 붉은 장미는 분명 영국왕실의 영광의 상징이다. 그러나 아일랜드의 현실은 이와 다르다. 장미의 붉은 색은 민족적 동질성을 의미하는 피의 색깔이라는 점에서 식민통치의 굴레 하에 있는 아일랜드인들에게 강력한 호소력을 가진다(DARin 122). 설라와 인생에 대해 토론하는 장면에서 아야몬은 “청춘의 진홍색 장미”라는 구절로 새로운 세상 건설에 대한 자신의 열정을 표현한

다(239). 그렇지만 3막에 이르기 전까지 빈민가 사람들과 노동자들은 여인의 솔 아래 감추어져 드러나지 않는 붉은 장미처럼 숨어 살았다. 아야몬이 작사한 노래에는 인물들의 의식이 고스란히 드러나 있다.

수수한 검정 솔이 그녀의 몸을 완전히 가립니다
 햇빛과 바다의 짝조름한 물보라에 젖은
 그러나 어두운 품 속에 사랑스러운 가녀린 손으로
 나를 위해 한 다발의 장미꽃을 가지고 다닙니다.

A sober black shawl hides her body entirely,
 Touch'd by th' sun and th' salt spray of the sea;
 But down in th' darkness a slim hand, so lovely,
 Carries a rich bunch of red roses for me. (246)

“나를 위해 큰 장미꽃 다발을 가지고 오는” 여인은 검정 솔로 몸을 가린 채 어둠 속에서 기다린다. 파업집회에서 이 노래는 노동자들을 단결시키고 새로운 세상에 대한 희망을 갖도록 만든다. 여인은 언젠가는 장미를 꺼내 보여줄 것이고, 그것은 영광스러운 아일랜드가 건설될 때가 될 것이다. 3막에서 어둠이 물러가고 석양과 함께 환상 속의 더블린이 나타났을 때 인물들은 거대한 장미꽃을 목격하게 된다. 그것은 법원건물 꼭대기의 돔(dome)이다. 아야몬은 이 돔이 거대한 청동사발에 담긴 황금장미처럼 보인다고 외친다. 법원은 아일랜드 국체의 상징과 같은 건물이고, 법원건물 정상의 돔이 황금장미처럼 보이는 것은 영광스러운 아일랜드의 꿈이 이루어졌다는 뜻이다. 아야몬이 자신의 세계와 대척점에 있는 설라를 놓아주지 않은 것은 모든 아일랜드인의 화합이 이루어질 때 진정한 독립을 이룰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이다. 그러한 정신적 통합을 통해서 이룬 조국의 독립만이 영광의 장미를 획득할 수 있다.

5. 클린턴 목사와 아야몬의 희생제의

클린턴 목사(Reverend E. Clinton)는 아야몬의 죽음 이후 그의 시성(canonization)을 위한 예배를 집전하는 역할을 한다. 쉘라가 아야몬과 교제 중이라는 것과 그가 노조활동을 한다는 사실을 못마땅하게 보는 핑글라스(Finglas) 경찰서장은 아야몬을 다리 근처의 행상들과 같은 부랑자 류의 인간이라고 폄하한다. 목사는 이에 대해 “그런 말 마세요. 아야몬 브레이던의 마음에는 천국이 있습니다”라고 말한다(280). 목사는 아야몬과 비슷하게 마음이 넓은 성직자이다. 교리에 얽매어 배타적이기보다 타 종파와 이념을 인정하고 너그럽게 받아들인다. 그런 의미에서 4막의 모티프는 부활과 화합이다. 장소는 성 버누퍼스 프로테스탄트 교회(the Protestant church of St. Burnupus) 앞마당이고 시간적 배경은 부활절 전야제(the Vigil of Easter)이다. 목사는 찬송가를 부르면서 예배 준비를 한다. “당신께서 어두운 무덤에서 일어나신 것처럼 / 우리도 그렇게 일어나서 대적하게 하소서 / 마보, 또는 악당에게 주어진 권력에 / 당신께 간구하옵니다”(294). 이 찬송가는 부활절 예배의 개막을 알리는 노래이다. 하지만 동시에 아야몬의 죽음을 예수의 부활과 같은 맥락에서 해석할 수 있는 암시를 주기도 한다. 4막에서는 파업 이탈자 포스터(Foster)와 다우자드(Dowzard)가 아야몬을 비판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그들은 교회지기 사무엘(Samuel)에게 성찬식 테이블에 장식할 수선화 십자가는 카톨릭 교회의 상징물로 개신교 부활절 의식에 맞지 않는다는 말을 한다. 이 수선화 십자가는 아야몬의 어머니 브레이던 부인이 가져온 것이다. 목사의 수선화 십자가 해석은 종파적 관습에 얽매이지 않고 관용적이다. 그는 수선화는 생명의 계절인 봄의 꽃이며, 그런 차원에서 예수의 부활과 상징적으로 연관될 뿐이라고 말한다. 클린턴 목사는 파업을 위해 떠나기 전 아야몬에게 수선화 십자가를 직접 성찬식 테이블에 올려놓으라고 말한다. 성찬식은 예수의 십자가 처형 전날 밤 제자들에게 자신의 살과 피를 상징하는 빵과 포도주를 나누어준 최후의 만찬을 기념하는 의식이다. 아야몬이 수선화 십자가를 성찬식 테이블에 올려놓는 행위도 그런 맥락에서 이해하는 것이 타당하다. 십자가는 다가오는 죽음의 예고이면서 동시에 부활의 상징이다.

아야몬의 역할이 사회적 연대를 이루어 정치적 투쟁을 하는 것이라면 목사의 역할은 교구의 신도들이 다치거나 사망하였을 때 종교적 의식으로 위로하고 장례를 치러 주는 것이다. 1, 2막에서 인물들의 모임의 장소가 아야몬의 집이라면 4막에서 그들의 안식처는 교회다. 멀리서 파업노동자들과 경찰이 충돌하는 소리가 들리자 목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아야몬을 모든 위험로부터 보호해주소서!”라고 기도한다(305). 아야몬이 총상을 입고 사망하여 교회로 실려왔을 때 다우자드는 받아들이면 안 된다고 말한다. 목사는 백파이프 음악에 맞추어 입장하는 아야몬의 시신을 위해 기도를 한다. 아야몬은 아일랜드를 위해 희생제물로 바쳐진 성자이다. 목사의 역할은 아야몬을 성자의 반열에 올려놓을 제의의 집전자가 되는 것이다.

6. 결론: 아야몬의 희생제의

“아야몬의 죽음은 보다 밝은 인류애를 이루기 위한 발전에 내재된 필연 즉, 불가피성이다”(O’Riordan 262-63). 그의 사망 소식은 함께 춤을 추던 피놀라에 의해서 전달된다. 그녀도 파업현장에서 기마병들에게 짓밟혀 부상을 당한 채 무대로 기어들어와 아야몬의 마지막 말을 전한다. “우리는 오늘 하루치의 일을 해냈을 뿐이고 내일이면 다시 시작할 것입니다”(307). 아야몬이 추구하는 신의 축복은 주당 1실링의 임금인상이라는 점에서 그가 요구하는 파라다이스는 영적인 것이 아니라 물질적인 것에 기반한다. 아야몬은 파업현장으로 달려가기 직전 1실링을 “우리 신의 임재”(Shechinah)라고 말한다. 유태인의 예술에서 신의 임재는 하늘에서 쏟아지는 빛으로 표현된다. 오케이스는 모든 인간과 건물이 석양빛에 의해 탈바꿈하는 3막의 더블린의 모습으로 신의 임재를 표현한다.

설라는 시신으로 도착한 아야몬의 가슴에 장미다발을 올려 놓는다. 장미는 작품의 제목에서부터 시작하여 아야몬이 작사한 노래의 가사, 그리고 자신의 길을 가시 돌친 장미가 있는 곳에 비유한 일까지 아야몬의 언어에 일관되게 사용된 상징이다. 그런데

시신으로 돌아온 그의 가슴에 진짜 장미가 놓인 것이다. 노래 속의 장미를 든 여인이 실제로 나타나 죽은 아야몬에게 장미를 선사한다. 아들의 시신 앞에서 브레이던 부인이 보여준 견인주의의 미덕은 『주노와 공작』에서 주노가 보여준 것과 비슷하다. 교회 마당에 선 브레이던 부인은 장미과의 마가목 나무를 바라보며 이렇게 외친다. “아야몬은 꽃이 피었을 때도, 만발하였을 때도 저 나무를 사랑했다. 아름다운 것이 그의 천성에 풍부하게 자라고 나중에 붉은 열매가 열리는 것처럼 오늘 붉은 피가 그의 하얀 몸에서 흘러나왔다”(312). 의미상으로 마가목의 붉은 꽃은 또 하나의 장미꽃과 같다. 브레이던 부인은 아야몬에게 또 한 사람의 장미꽃을 든 여인이다. 브레이던 부인은 아들의 죽음에서 오는 슬픔을 응축된 문장으로 승화시키는 철학적 용기를 보여준다. 아야몬의 삶은 두 사람의 여성, 즉 그의 어머니와 그의 애인 쉘라에 의해 완성된다. 그들은 늙고 추한 캐슬린이며, 동시에 젊고 아름다운 여왕의 걸음걸이의 캐슬린이다. 아야몬은 “진실된 사람이 죽어 천 개의 세계의 탄생 속에서 매장된다”(270)고 파업현장으로 달려가기 전에 말한다. 그의 죽음은 단순한 파업가담자의 죽음이 아니라 미래의 새로운 세상을 기약하는 희망의 메시지이다.

아야몬은 신념에 찬 지도자이다. 3막의 석양빛은 더블린을 천국 같은 도시로 만들었지만 그것은 새로운 세상을 위한 비전이었으며 곧 사라지는 신기루였다. 아야몬은 파업을 시작하기 전 세 여인에게 이렇게 말한다. “우리의 파업은 당신들의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한 발짝을 내딛고, 당신들이 내일 또 한 발짝을 내딛을 것입니다. . . . 살아 있는 모든 남녀는 앞으로 전진해야 합니다. [이다에게] 사과가 자라면 당신이 따먹을 겁니다. [딤프나에게] 오랑캐꽃이 자라면 당신의 옷을 염색하세요. [피놀라에게] 젊은 아가씨, 당신의 자궁에 또 하나의 세계가 있습니다”(287). 찬란한 석양 아래 아야몬과 피놀라가 춤을 춘 것은 두 사람의 영적 결합이며 미래에 대한 기약이다. 두 사람의 춤은 아름다운 혼인식이었으며 개신교도 아야몬은 카톨릭 교도 피놀라에게 미래의 지도자를 잉태시키고 떠난 것이다. 비록 그가 사귄 여인은 부잣집 딸 쉘라였지만, 그의 정신적 고향은 밀바닥 계층의 사람들과 건설하게 될 이상사회에 있다. 아야몬의 삶은 아일랜드가 모든 질곡을 극복하고 새로운 공동체로 거듭나기 위해 필요한 지도자

상을 보여주었으며, 그의 죽음은 새 아일랜드를 건설하기 위해 지도자가 치러야 할 헌신의 완결이다. 제의적 영웅 희생(ritualistic heroic sacrifice)으로서 아야몬의 삶과 죽음은 하나의 사건 이상이며 아일랜드 젊은이들의 사표가 될 것이다(Scrimgeour 132). 아야몬에 이르러 비로소 오케이스는 아일랜드의 남성영웅을 작품 속에서 만드는 데 성공하였다. 『나에게 붉은 장미를』 은 근대 아일랜드 드라마에서 새로운 영웅의 탄생을 알리는 작품이다. 아일랜드인들에게 아야몬의 죽음은 끝이 아니다. 새로운 시작이다. 그의 죽음은 과거가 아니고 현재다. 그리고 미래다.

Notes

- 1) 아야몬은 제임스 라킨을 모델로 하여 만든 인물로 알려졌다. 1917년 러시아혁명보다 4년 먼저 발생한 더블린의 1913년 직장폐쇄는 짐 라킨(James Larkin)이라는 결출한 노동운동 지도자를 탄생시켰고, 그가 더블린의 빈민가를 다니면서 외친 노동자의 단결과 투쟁의 근본이 되는 노동조건의 원칙은 후에 라킨주의라는 이름으로 노동현장의 금과옥조로 이용되었다.
- 2) Sean O'Casey, *Three More Plays*, London: St. Martin's, 1969. 앞으로 이 작품 인용시 페이지 숫자만 기록함.
- 3) 1848년의 청년 아일랜드인 반란(Young Irelander Rebellion of 1848)에 참여한 인물로 다른 반란가담자들과 함께 사형선고를 받고 오스트레일리아로 추방되었다가 탈출하여 1861년 사망할 때까지 미국에서 거주하였다. 나중에 그의 시신이 아일랜드로 이송되어 공화주의자들에 의해 장례 되고 매장되었다.
- 4) 아일랜드의 전설적인 시인이며 전사.

인 용 문 헌

- Ayling, Ronald. *Sean O'Casey*. London: Macmillan, 1969. 126-30. Print.
- DARin, Doris. *Sean O'Casey*. New York: Frederick Ungar, 1976. 99-123. Print.
- Esslinger, Pat M. "Sean O'Casey and the Lockout of 1913: Materia Poetica of the two Red Plays." *Modern Drama* 6.1 (1963): 53-63. Print.
- Innes, Christopher. "The Essential Continuity of Sean O'Casey." *Modern Drama* 33.3 (1990): 419-33. Print.
- Kleiman, Carol. *Sean O'Casey's Bridge of Vision: Four Essays on Structure and Perspective*. Toronto: U of Toronto P, 1982. 49-106. Print.
- Krause, David and Robert G. Lowery, eds. *Sean O'Casey Centenary Essays*. Gerrards Cross, Buckinghamshire: Colin Smythe, 1980. 19. Print.
- Malone, Maureen. *The Plays of Sean O'Casey*. Carbondale: Southern Illinois UP, 1969. 150-60. Print.
- Mikhail, E. H. and John O'Riordan. *The Sting and the Twinkle: Conversations with Sean O'Casey*. New York: Barnes and Noble, 1974. 16-82. Print.
- Mitchell, Jack. *The Essential O'Casey: A Study of the Twelve Plays of Sean O'Casey*. New York: International Publishers, 1980. 208-37. Print.
- O'Casey, Sean. *Three Plays*. London: Pan, 1983. 131-218. Print.
- _____. *Three More Plays*. New York: St. Martin's, 1969. 221-317. Print.
- O'Riordan, John. *A Guide to O'Casey's Plays: From the Plough to the Stars*. Hong Kong: Macmillan, 1984. 241-71. Print.
- Scrimgeour, James R. *Sean O'Casey*. Boston: Twayne, 1978. 128-38. Print.
- Simmons, James. *Sean O'Casey*. London: Macmillan, 1983. 121-24. Print.
- Smith, B. L. *O'Casey's Satiric Vision*. Kent, OH: Kent State UP, 1978. 103-15. Print.

Abstract

Sean O'Casey's Search for an Irish Hero: *Red Roses for Me*

Dong-Ho Sohn (Hankuk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Most of the male characters in Sean O'Casey's early plays are buffoons, or escapist who indulge in self-delusion instead of facing reality. O'Casey's male characters are usually satirized, or ridiculed by the author himself because of their mental hollowness and irresponsibility in contrast with the female characters who resemble his mother. Ayamonn Breydon in *Red Roses for Me* is the most accomplished male protagonist and the leader material in all of O'Casey plays. Ayamonn's main concern is to participate in the upcoming railroad and transport workers' strike to gain a one shilling wage raise a week. Ayamonn's popularity in the neighborhood draws people around him because he never lets down any of his friends as long as they are earnest in maintaining their ideas. When Dublin is transformed into a fantasy world with the light from the sunset in Act 3, Loory says, "The Sword of Light is shining."

Minor characters like Eeada, Dymna, Finnoola and the nameless men and workers participating in the strike are the ones that cooperate to make the Irish male hero of the era named Ayamonn. They seem even characterless and act little in relation with the other main characters until the action reaches Act 3. Ayamonn as a leader exists because he is looked up to and sought after by the minor characters. Ayamonn presides over the transformation of the city in Act 3. He dances with one of them, Finnoola. Ayamonn is a revolutionary ready to put down his life for the sake of his fellow workers. Ayamonn's funeral coincides with the eve of the Easter so that his death is interpreted in the context of the Jesus' resurrection.

Key Words: Irish drama, Sean O'Casey, literature and labor, *Red Roses for Me*, twentieth-century drama, Expressionist drama

논문접수일: 2019.01.15

심사완료일: 2019.02.03

게재확정일: 2019.02.14

이름: 손동호 (교수)

소속: 한국외국어대학교

이메일: dohsohn@hanmail.net